

보도시점 : 2024. 2. 8.(목) 10:00 이후(2. 8.(목) 석간) / 배포 : 2024. 2. 7.(수)

촘촘한 설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

- 국토부, 8일부터 시행되는 관계기간 합동 특별교통대책 현장 점검 나서

- 국토교통부(박상우 장관)는 설 연휴기간 중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·귀경을 지원하기 위해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적극 추진한다.
- 박상우 장관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월 8일(목) 오전 10시 국가교통 정보센터(정부세종청사)에서 설 연휴기간 특별교통대책 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통해 주요 산하기관별 대책을 보고받고, 오후 2시부터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(성남시)에 마련된 특별교통대책본부를 방문하여 특별교통 대책을 점검한다.
-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으로 설 연휴 기간 중 원활한 도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71개 갓길차로를 개방하여 운영하고,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 134개 구간을 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하여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. 또한 도로 혼잡을 최소화하고 교통편을 다양화하기 위해 철도·버스·항공 등 대중교통의 수송력도 증강한다.
 - * 버스·철도·항공 전체운행횟수 11,682회 증회(106,807회→118,489회, 10.9%↑), 공급좌석 83만 9천석 증가(781만석→864만9천석, 10.7%↑)
- 특히, 설 연휴 첫날인 2월 9일부터 대체 공휴일인 12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고, 철도를 이용하는 역귀성객, 4인 가족동반석 승객에게는 철도운임을 최대 30%할인하여 교통비 부담 완화를 통한 민생안정에 기여한다.
- 아울러, 철도역이나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수화물을 운송해주는 짐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, 인천공항 출국장 조기운영, 스마트 항공권 등의 공항서비스도 시행하여 귀성·귀경·여행객의 이동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다.

-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의 품질과 가격 관리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하고, 3500원 이하 알뜰간식 판매(10종 이상), 간식 꾸러미 할인 판매(최대 33%)도 추진한다. 11개 휴게소*에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하여 전기차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.

* 오창(남이), 치악(춘천), 음성(하남), 충주(창원), 고창고인돌(서울), 군위(부산), 입장거봉포도(서울), 옥산(부산), 예산(대전), 천안호두(부산), 망향(부산)

- 박 장관은 특별교통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며, “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”고 격려하고,
 - “명절기간에는 졸음운전, 주시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만큼, 관련 안내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힘써주시고, 교통사고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것“을 당부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교통물류실 교통정책총괄과	책임자	과장	이재평 (044-201-3804)
		담당자	사무관	김광수 (044-201-3791)
담당 부서	도로국 디지털도로팀	책임자	과장	김상민 (044-201-4130)
		담당자	사무관	안정인 (044-201-4135)
담당 부서	도로국 도로정책과	책임자	과장	강태석 (044-201-3875)
		담당자	사무관	최용관 (044-201-3883)
담당 부서	도로국 도로관리과	책임자	과장	한성수 (044-201-3909)
		담당자	사무관	안일찬 (044-201-3912)
담당 부서	종합교통정책관 교통서비스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주열 (044-201-3823)
		담당자	사무관	박삼범 (044-201-3824)
담당 부서	철도국 철도운영과	책임자	과 장	김민태 (044-201-3970)
		담당자	사무관	홍종길 (044-201-4631)
담당 부서	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	책임자	과 장	신윤근 (044-201-4204)
		담당자	사무관	김동현 (044-201-4184)